

## ‘전주에 등지·총돌’ 정전 증가...한전은 새와 전쟁 중

5년간 광주·전남 354건 정전 중 53건 ‘조류 원인’  
 까치 등지 주 원인...“녹지확대, 장기 공생안 모색”

한국전력공사가 광주·전남 지역의 조류로 인한 정전 사고가 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새로 인한 정전은 지난 2018년 4건, 2019년

8건, 2020년 13건, 2021년·2022년 각 14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일어난 정전 354건 중 조류로 발생한 정전은 53건(14.9%)을 차지했다.

지난 15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에서 새가 전주의 전선을 건드려 인근 아파트 600여 가

구가 정전되기도 했다.

특히 ‘까치 등지’로 인한 정전이 최근 5년간 37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전은 까치집의 재료인 나뭇가지나 철사가 전선과 닿으면서 일어난다.

까치들은 주로 미루나무 등 키가 큰 나무에 등지를 트는 습성이 있는데, 도시가 확장하고 선호하는 나무가 줄자 이를 대신할 우뚝 솟은 전주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해마다 까치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정전 감소와 새와의 공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한전은 정전 예방을 위해 매년 30억 원을 들여 봄철 까치 등지 5~9만 여 개를 철거하고 있다. (사)야생동물피해방지협회 등에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 사살·포획을 위탁한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등지를 털어내도 이틀날 까치가 같은 자리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 여러 곳에 등지가 있어 많은 인력·시간·예산이 들지만 현재로서는 철거와 포획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까치가 머물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등 장기적인 공생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두표 전 호남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는 “새가 등지를 틀기 적합한 나무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까치가 자주 집을 짓는 지역을 자료화하고 해당 지역에 전신주를 대신할 만한 나무를 심거나 대체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성난비건 회복 활동가는 “등지 철거 과정에서 추락사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시 야생동물구조센터에 새끼를 인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용일기자



정부, 천일염 계약 출하제도 도입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재래시장에서 판매 중인 천일염. 최근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급등한 천일염에 대해 정부가 출하 시점 가격과 관계없이 생산자와 사전 계약한 가격으로 출하하는 계약 출하제도를 도입해 천일염 가격 완화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1년17일만에 귀국  
 “못다한 책임 다할 것이다”

대권 주자로서 실력 향상 등 피력한 듯  
 당 안팎 역할 관련 질문에는 묵묵부답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귀국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유학길에 오른지 1년17일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갈등 속에서 혁신위를 출범시킨 상황에서 귀국한 이 전 대표가 경제 위기, 외교 문제 등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한 만큼 내년 총선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이런 과정에서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58분께 귀국한 뒤 3시8분께부터 입국장 앞에서 소회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야당 지도자로서의 책임있는 행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 전 대표는 시작부터 “여러분은 고통을 겪는데, 떨어져 지내서 미안하다” 지지자를 위로하며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현 정권에 대한 강한 비판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다” 등 우려를 표하며 ▲수출 위축 ▲경제 위기 ▲민주주의와 복지의 후퇴 ▲대외관계 붕괴를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주시길 바란다. 대외 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 “원전 오염수 해의 방류 중단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에는 “대한민국을 더 존중해야 옳다”고, 러시아에는 “침략은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자신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저의 책임도 있다는 걸 잘 안다”며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일했다.

이 전 대표는 당분간 잠깐하면서 민심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영향력 확대, 비명계 구심점 역할 등은 당 분열을 야기하는 행보로 비판받을 수 있어서다.

하지만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총선 역할론이 커질 수 있어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야권 지지층 결집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동취재본부

### 장마전선 영향 광주·전남, 이틀간 150mm 이상 ‘장대비’

전남 9개 지역 호우특보 전망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전남 지역에 이틀간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25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26일까지 전남 남해안에 150mm이상 비가 내린다.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에 이틀 동안 40~120mm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남해안에 내리는 비는 이날 오후부터 광

주·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다. 전남 해안엔 이날 오후부터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40~60mm의 강한 비가 내린다. 이 밖에 지역도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예보됐다.

이날 오후부터 전남 9개 시군(고흥·보성·여수·장흥·강진·해남·완도·신안·진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계곡이나 하천, 저지대의 물 범람과 공사장 축대 붕괴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슬비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지주담양군연합사업단